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47

공덕 쌓고 자비 베풀어야

[원문]
외의당만법왕(巍巖堂萬法王)
삼십이상백천광(三十二相百千光)
막위자용난득견(莫謂慈容難得見)
불리기원대도량(不離祇園大道場)
-성륜산 용덕사 대웅보전

[번역]
높고 높아 당당하신 만법의 왕
32상으로 백천광명을 비취주는구나
그 자비로운 모습 뵈옵기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
기원정사 떠나지 않고 황상이 대도량에 나투시네.

[신해(禪解)]
2010년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다. 승가(僧家)에서의 새해 의미는 매우 각별하다. 사찰들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야(除夜)의 타종과 신년 법어, 탑돌이 등 새 출발을 다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대개 사찰에서는 그믐 자정에 백팔번뇌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108번의 타종을 치는데 이는 지난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에 모든 중생들의 소망을 담은 불교의 오랜 전통이기도 하다. 범종은 법고, 운관, 북어와 함께 사들의 하나로 육지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세계 되는데 이를 하람이라고 한다. 또 수행승은 수행연수의 다과에 따라 상랍·중랍·하랍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특별히 법랍이 많은 이는 남판(臘滿)·극랍(極臘)·일랍(一臘) 등으로 부른다. 승가에서 이러한 법랍을 세는 것은 바로 나이만 먹는 '밥도둑'을 배제하기 위해서인데 요즘에는 출가 연도부터 해를 따져 법랍을 센다. 말하자면, 수행은 하지 않고 그저 밥만 얻어먹는 승가의 밥도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렇듯 절집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법도(法道)를 지니지 않는 게 없다. 수행자나 불자들은 이에 대한 깊은 뜻을 알아야 한다.

오늘의 주련 여행은 성륜산 용덕사이다. 이곳은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龍珠寺)의 말사이자, 신라 문성왕 때 영거 선사(靈居禪師)가 창건하였고, 신라 말기 도선 국사(道詵國師)가 중창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석가여래삼존불과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보이는 57위의 나한상을 봉안하고 있는 대웅전은 석가여래를 본존으로 모신 주불전으로 3×3칸 규모로 대표적 팔작지붕으로 세워졌으며 정면 여간 양쪽의

아버지의 병을 고치게 하였다고 한다. 이를 설명하듯 법당에는 한 마리의 우렁찬 정룡이 적옥(赤玉)을 입에 물고 몸부림을 치며 하늘로 승천하는 벽화가 남아 있다.

그럼 대웅보전 주련의 내용을 살펴보자.

'외의당만법왕 삼십이상백천광: 높고 높아 당당하신 만법의 왕. 삼십이상으로 백천광명을 비추신다.'

상(相)이란 전생애 쌓은 공덕이 신체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삼십이상은 부처님이나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몸이 지니고 있었다는 삼십 두 가지의 모습이다. 불상의 이마 한가운데에 박혀 있는 보석이나 삼투처럼 솟은 정수리는 불상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 중에서 이마 한가운데 있는 보석은 본래 백호(白鬍)라는 하얀 털로 부처가 이를 통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다고 하고, 삼투처럼 솟아오른 정수리는 육계라고 부른다. 이러한 불상의 특징도 모두 삼십 두 가지에 이른다. 부처님이 이 삼십이상으로 만법의 제왕으로서 당당하게 중생들을 항상 보살피고 계신다는 뜻이다.

그러나 수행자라면 이러한 32상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형상에 집착하거나 몰들지 않고 항상 그대로 공(空)임을 요달해야 한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일체의 상(相)을 떠나면 부처다(離一切相即名諸佛)"라고 했다. 또 "모든 형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여래를 보는 것이다(諸相非相 即見如來)"라고 했다.

'막위자용난득견 불리기원대도량: 자비로운 그 모습 뵈기 어렵다고 말하지 마라 기원정사 떠나지 않고 항상 이 대도량에 나투시네.'

어리석은 중생들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대광명을 기다리고 있지만 만나기 힘들다고 투덜거린다. 그러나 부처님은 옛날 기원정사에 계시 때부터 현재, 미래에도 항상 우리 곁에 나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의 광명을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공덕을 쌓아야 하고 자비를 베풀어야만 한다. 불가에서는 부처님의 출현을 시간에 따라 과거불(過去佛)·당래불(當來佛)·현재불(現在佛)로 나누기도 하는데 곧 부처님이 자비(慈悲)의 상징임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용덕사 대웅보전의 주련이 담고 있는 내용은 '외의당당한 32이상을 가지신 만법의 제왕인 부처님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항상 우리 곁에서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경구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2

실상과 하나 되기 위해 정진

[원문]
又問曰 云何觀心 稱之爲了 答曰 菩薩摩訶薩 行深般若波羅密多時 了四大五蘊 本空無我 了見 自心起用 有二種差別 云何爲二 一者淨心 二者染心 其淨心者 卽是無漏眞如之心 其染心者 卽是有漏無明之心 此二種心 自然本來俱有 雖假緣和合 互不相生 淨心恒樂善因 染心常思惡業 若眞如自覺 覺不受所染則稱之爲聖 遂能遠離諸苦 證涅槃樂 若隨染造惡 受其纏覆則名之爲凡 於是沈淪三界 受種種苦 何以故 由彼染心 障眞如體故。

달마 대사께서 또 대답하셨다. "지, 수, 화, 풍의 네 가지 원소와 색, 수, 상, 행, 식의 오온이 본래 공하여 '나'가 아님을 알아야 하며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작용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무엇을 두 가지라 하면, 하나는 청정한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더러운 마음이다. 청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번뇌가 없는 진여의 마음이고, 더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번뇌가 있는 어리석은 마음이니라. 이 두 가지 마음은 본래부터 저절로 함께 존재하는 것이며, 어떤 인연으로 어울릴 수는 있으나 서로를 생겨나게 하지는 못하느니라. 청정한 마음은 항상 선인(善因: 선근)을 좋아하는데 더러운 마음은 항상 악업을 생각하느니라. 만일 진여를 스스로 깨달아 깨달음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면

성인이라 하는데, 마침내는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열반의 즐거움을 받을 것이고 만일 더러움에 유혹을 받아 악을 지어 그것에 묶이고 덮이면 범인이라 하는데 삼계에 빠져 갖가지 고통을 받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마음이 더러움에 덮여 진여의 본체를 가렸기 때문이니라."

[해설]
지, 수, 화, 풍은 흙, 물, 불, 바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빠져나가면 눈, 귀가 있어도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주인이고 육신은 객(客)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생겨요. 이것은 번뇌입니다. 지, 수, 화, 풍 네 가지 원소와 색, 수, 상, 행, 식도 모양이 없는 것에서 나왔으니까 모양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모양이 없는 것에서 나온 물질로 된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니까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현들은 청정한 마음을 쓰고 있고, 우리는 더러

운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실상(實相)에 마음을 두고 행하지 않는 마음은 번뇌의 작용이니 더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름이 끼면 빛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잖아요? 태양은 언제나 빛을 내고 있지만 구름이 끼면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름이 짙어지면 밝은 빛이 나와서 대자연에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부처님과 같은 청정한 마음인데, 잘못된 견해로 만들어 놓은 업(業)이 불성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우주의 근본 실상, 하나의 마음을 진여(眞如)라 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정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은 본래 두 가지가 있는데, 성현들은 수행을 통해서 실상을 깨달았기 때문에 청정한 마음을 쓰고 있고 우리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청정한 마음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청정한 마음 자체는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생불멸(不生不滅: 생도 죽음도 없다)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청정한 불성(佛性)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청정한 마음은 항상 선인(善因: 선근)을 좋아하는데 더러운 마음은 항상 악업을 생각합니다. 우주의 근본, 진여(眞如)에서는 좋은 인연만 생각한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하면 중생을 제도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될까?' 하는 생각만 합니다.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이라는 것은 먹고 놀기 좋아하는 이런 쪽으로 쓰는 마음을 말하는데, 업이 불성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 더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는 행위는 진여(眞如)인 불성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 절대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주로 살아와서 정진하는 중에 힘들면 다음에 하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중생(衆生)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예요.

근본 실상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정진의 끈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고 해도 고통에서 벗어나는데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단 심(心)이라도 내 마음을 찾고 자 하는 정진만이 다음 생에도 큰 힘으로 나타납니다. 수행을 통해서 법의 맛을 느끼게 되면 수행에 탄력이 붙게 됩니다. 그렇게 수행해서 득력(得力)을 하시기 바랍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김영수 작 '달마' (소재 테라쿠타).

그믐 자정 백팔번뇌 없애는 108타종 불가의 전통

부처님은 과거 현재 미래 항상 우리 곁에 나투신다

기둥 상부에는 용을 조각하여 끼었다. 양 측면 중앙의 간에는 각각 지장탱과 신중탱을 모셨는데 지장탱은 중앙에 커다랗게 지장보살을 그리고 좌우에 시왕과 그 권속들을 대칭으로 배치하였다. 지장보살은 연꽃 위, 의자에 앉아있는 반가상이다. 오른손에는 보주를 들고 있으며 통견의 법의에 영락을 늘어뜨린 모습으로 원형의 광배를 지니고 있다. 신중탱은 중앙에 위태전을 크게 그리고 그 위에 대예적금강신을 그렸으며 좌우로는 대법천과 제석천을 그렸다. 전체가 좌우대칭의 구도이며, 주변으로는 신중상을 배열하였다.

또한 용덕사는 도선 국사가 조성한 삼층석탑과 철인(鐵人) 3위 중 2위가 남아 있는 문화재의 보고이다. 대웅전 위로 나 있는 암굴 입구에는 반가사유상의 정교한 보살좌상이 있는데 이 또한 도선 국사가 조성한 것으로 전한다. 용덕사의 이름은 용의 덕택을 보았다는 설화에서 유래하는데 암굴에 얽힌 전설은 1200여 년 전 신라 문성왕 이래로 구전(口傳)되어 오고 있다. 암굴에 용이 살고 있었는데 1000년을 기다린 끝에 용이 여의주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마침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자 암굴에서 한 처녀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 본 용은 처녀의 효심에 감탄하여 여의주를 처녀에게 주어

어찌든 이 모든 승가의 행사들은 한해의 모든 번뇌를 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살아가겠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누구나 새해를 맞는 감회는 남달라 것이다. 살아온 생의 연륜에 한 살을 더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승가에서 나이를 세는 의미는 조금 다르다. 이른바 법랍(法臘)이다. 이는 불가에서 속인이 출가해 승려가 된 해부터 세는 나이를 뜻하는데 세수와 달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좌랍(坐臘)·계랍(戒臘)·하랍(夏臘)·법세(法歲)라고도 한다.

납(臘)이란, 본래 연말에 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뜻하여 세말(歲末)을 일컫는 말인데, 출가하여 수행하는 비구(比丘)는 세속에서 12월 말을 연말로 치는 것과는 달리, 하안거(夏安居) 제도에 따라 음력 7월 15일을 연말로 하고, 안거를 마친 횡수대로 나